

보도시점 2026. 8. 20.(목) **배포 시** 배포 2026. 8. 20.(목)

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하고, 불법 도축을 엄단하겠습니다.

- 염소산업 발전대책('26. 2월 발표)에 따라 종합적 지원·관리 추진 중 -

〈 보도 주요 내용 〉

8월 20일(목) 한국일보, 「개 대신 염소가 뜬다더니...절반 가량이 불법 도축」 기사에서 ‘염소 도축에 대한 수요는 늘지만 전용 도축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, 불법도축이 43.1% 수준으로 추정된다’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〈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〉

①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염소이력제·도축장 확충 등 “염소산업 발전대책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권역별(시·도) 전용 도축장 신설을 지원하여 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.

3개소 이상의 염소 도축업체가 통폐합하여 거점 도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개소당 50억 원 이내 자금을 지원하고, 중소 규모의 도축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20억 원 이내 자금을 지원합니다.

* (융자지원 조건) 지원한도액의 70%(자부담 30%), 연리 2.0(생산자)~3.0%(일반업체)
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
②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염소 불법도축 단속 및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식약처에서는 '25년부터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축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,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농식품부에서는 생산자단체·농협의 회원(조합원)을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 관리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·홍보하는 한편, 지역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장*에 불법 도축 금지, 정식도축 경로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·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.

* (현황) 지역 축협에서 염소 가축시장 27개소 운영 중('26.5월 기준)

농식품부는 향후 “염소산업 발전대책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업계와의 소통·협력을 강화하는 등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	책임자	과 장	전익성	(044-201-2371)
		담당자	사무관	한병윤	(044-201-2322)
	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	책임자	과 장	오재준	(044-201-2971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원	(044-201-2975)

